

# 실망스러운 한국축구... 축 처진 태극전사들

###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6차전 중국에 0-1패... 월드컵 본선 진출 순탄치 않아

한국 축구가 그동안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중국에 달미를 잡혔다. 직접 그라운드를 누린 선수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3일 중국 청사 허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6차전에서 중국에 0-1로 졌다.

한국은 64%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도 달미를 잡혔다.

전반 34분 위다바오에게 내준 선제골을 끝까지 만회하지 못했다.

자동원은 "원하는 승점 3점을 얻지 못해 실망스럽고 좌송하다. 차분하게 경기를 풀려고 했고, 사이드 공격으로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렵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컨디션은 괜찮았지만 공격수의 임무인 득점을 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아쉬워했다.

전반 8분 만에 옐로카드를 받아 오는 28일 시리아와의 7차전에 나설 수 없게 된 자동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는 것 같다. 남은 선수들이 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동료들을 응원했다.

미드필더 구자철은 "어려운 경기를 한 것 같다. 더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기에 상대에게 승리를 허락했다. 준비한 것을 보여주려고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종예선에서 두 번이나 역전했던 경험이 있어서 실점에 당황하진 않았다"던 구자철은 "후반 들어 공격 패턴의 전세가 처졌다. 내가 밑에 처져 경기를 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상대가 잘 준비했다. 후반에 더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돌아봤다.

그동안 중국 원정에서 8승2무를 챙겼던



지난 23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청사 허룽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6차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혼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원정 첫 패의 오점을 남겼다.

구자철은 "선배들과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는 것 같다"고 팀 내 분위기를 전했다.

대다수 선수들은 중국의 변화에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다. 마르첼로 리피 감독 체제로 새 출발에 나선 중국은 어느 때보다 끈끈한 조직력으로 한국을 괴롭혔다.

장현수는 "리피 감독 부임 후 조직력이

극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뛰면서 확실히 느꼈다. 중국 선수들이 간절했다. 우리가 간절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자철은 중국의 변화를 두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축구에 투자를 한 것은 세계가 아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선수들이 세계적인 공격수를 상대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 선수들을 상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오늘도 조직적으로 잘 준비했다"고 상대를 칭찬했다.

한국은 이날 패배로 승점 10점(3승1무2패)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행히 조 4위인 시리아(2승2무2패·승점 8)가 우즈베키스탄(3승3패·승점 9)을 잡으며 2위 자리를 지켰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힘든 싸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구자철은 "오늘 3점을 가져갔다면 더 여유 있는 위치에서 남은 경기를 계속 해나갔을 텐데 굉장히 어렵다. 다음 경기가 중요한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근기자

## “즐기는 축구를 하겠다”

### U-20 4개국 축구대회 나서는 출전국 감독들 출사표

아디다스 U-20 4개국 축구대회에 나서는 각 팀 감독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20일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전초전이다.

한국을 포함해 온두라스, 짐바웨, 에콰도르가 참가한다.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 이비스 캠퍼스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는 짐바웨 베스톤 참배시 감독, 한국의 신태용 감독, 에콰도르 히비에르 로드리게스 감독, 온두라스 카를로스 타보라 감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팀 감독들은 저마다 "즐기는 축구를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한국의 첫 상대인 짐바웨 베스톤 참배시 감독은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우리는 준비가 잘된 팀이다.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짐바웨는 한국이 U-20 월드컵 개막전 상대인 기니의 가장 상대로 초청한 팀이다. 신태용 감독은 "우리가 아프리카 팀들과 경험이 많다. 짐바웨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짐바웨를 어떻게 준비하겠다기 보다는 첫 경기인 온두라스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U-20 월드컵 F조에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과 함께 묶인 에콰도르 히비에르 로드리게스 감독은 "이 대회에 초대해준 만큼 좋은 경기를 통해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겠다"며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팀 마다 색깔이 있으니 경험을 얻고 본선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첫 경기를 치르는 온두라스 카를로스 타보라 감독은 깜짝 선물을 공개했다. 온두라스는 월드컵 본선 E조에서 프랑스, 베트남, 뉴질랜드와 한 조에 속했다.

타보라 감독은 "U-20 월드컵 본선에서 아르헨티나와 만나는 한국을 위해 우리가 아르헨티나와 경기했던 비디오를 갖고 왔다. 이것이 한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고 웃었다.

이어 "남미 축구는 거칠다. 그 점에 대해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잘 준비를 하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라 생각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신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월드컵 본선에 나설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우리 선수들은 완전체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팀 감독들처럼 즐기는 축구를 하겠다. 좋은 팀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월드컵 본선에 맞춰 대회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오는 25일 온두라스(수원월드컵경기장), 27일 짐바웨(천안종합운동장), 30일 에콰도르(제주월드컵경기장)와 경기를 치른다. 경기 시간은 모두 오후 7시다.

/김민근기자



## 전주시 6개 기관·단체 'FIFA U-20 월드컵코리아' 관람 지원

### 축구 꿈나무들에게 전주 패키지 티켓 전달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문문화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청년기획사 우개, 전주문화의집 협의회 등 6개 기관·단체가 축구 꿈나무들에게 FIFA U-20 월드컵코리아 2017 관람을 지원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들 6개 문화기관 및 단체는 전주동초등학교에서 기증식을 갖고 총 130만원 상당의 U-20월드컵 전주 패키지 티켓을 전달했다.

기증식은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기관과 단체들이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U-20월드컵의 성공 개최에 일조하고, 미래 축구스타를 꿈꾸는 전주지역 축구 꿈나무들에게 세계적인 축구 유망주들의 게임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의기투합해 성사됐다.

특히, 이날 제공된 티켓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판매된 전주 패키지 티켓으로, 동 초등학교의 축구 꿈나무들은 개막전을 비롯한 조별예선 6경기과 16강전 1경기 등 전주에서 열리는 총 7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기증식에 참여한 한 문화계 인사는 "전주에서 개막하는 U-20 월드컵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U-20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역 문화계도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 전주시민축구단, 29일 중앙대와 FA컵 대결

전북도내 유일의 축구실업팀인 전주시민축구단이 오는 29일 중앙대학교와 FA컵 3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주시민축구단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3시 전주대운동장에서 대학 강호인 중앙대와 '2017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FA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국내 최강 축구팀을 가리는 대회다.

시민축구단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3라운드 진출에 아쉽게 실패한만큼 반드시 승리를 32강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그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을 대거 투입해 공격과 수비에서 압박을 통해 중앙대의 젊은 패기를 누르고 경기를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민축구단 안영철 감독은 "중앙대는 대학 강호로 만만히 볼 수 없는 상대이다"며 "이번 경기는 주전과 젊은 선수들을 고루 기용해 더욱 화려한 공격축구로 K3리그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은 이날 승리하면 다음달 19일 오후 7시 전남도체육관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32강을 갖는다.

/김민근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